

#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5. 3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## 목 차

1. 참치 투명성 서약, 2027년까지 100% 옵서버 감시 약속..... 3
2. 원양어선 선원 권리 운동, Wi-Fi 설치 지속 요구..... 4
3.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무역 개편 해산물 업계 개선 요구 제기..... 5
4. 미국 관세가 세계 수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..... 6
5. 캐나다, 중국 관세에 대해 WTO 절차 개시..... 8

- 참치 투명성 서약은 2024년 The Nature Conservancy가 시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, 2027년까지 산업용 참치 어선의 100% 해상 모니터링을 달성하여 참치 어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임.
- 이 서약에는 월마트, 앨버트슨스 컴퍼니스, 까르푸와 같은 주요 소매업체와 타이 유니온, 아라마크, 퍼시픽 아일랜드 참치 등의 공급업체를 포함한 중요한 서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.
- 이 서약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간 관찰자와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두 지원함. 전자 모니터링은 특히 연승 참치 어업에서 관찰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해결책으로 여겨짐.
- 주요 목표는 참치 공급망에서 "첫 단계 책임성"을 강화하여 추적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임. 이는 합법적인 제품과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) 어업을 통해 조달된 제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됨.
- 모니터링 강화는 부수어획을 줄이고 규정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환경과 합법적인 어부 모두에게 이익이 됨. 이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 관행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는 어부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함.

※ 출처: SeafoodSource<sup>1)</sup>

1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tuna-transparency-pledge-gains-major-signatories-promising-100-percent-observer-coverage-by-2027> ('25년 03월 28일 검색)

-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어부 실와누스는 2024년 대만 원양어선에서 사고로 손가락 끝을 잃었으며, 즉각적인 의료 지원 부족이 원인이었음.
- 글로벌 노동 정의(GLU)는 실와누스를 2025 북미 수산물 박람회에 초청하여 Wi-Fi 접근성을 옹호하도록 했으며, 이는 그의 손가락을 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.
- 또 다른 어부 아드리안은 부실한 근무 환경, 부족한 식량,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, 임금 체불 등과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음.
- GLU의 Wi-Fi 캠페인은 탄력을 받아 Whole Foods가 공급업체 지속 가능성 요건에 노동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선박에서 Wi-Fi 접근을 위한 운영 지침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음.
- 이 캠페인은 Wi-Fi 제공이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소송 위험을 줄이고 해산물 산업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비즈니스 관행임을 강조하고 있음.

※ 출처: SeafoodSource<sup>2)</sup>

<sup>2)</sup>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workers-rights-campaign-unveils-operational-guideline-for-wifi-access-on-distant-water-vessels> ('25년 03월 28일 검색)

- 트럼프 행정부는 '아메리카 퍼스트' 정책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함. 이에 대해 해산물 업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
  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대해 해산물 업계 및 협회들은 개선 사항을 제출하였음
  - 미국 수산업 협회(NFI)는 미국 해산물 생산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함
    - 특히, 중국의 보복 관세, EU, 일본, 브라질 등의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 해산물 수출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함
  - 미국 랍스터 업계는 EU와의 'Mini Deal'이 2025년 7월 만료됨에 따라 EU 관세 복원 우려를 표명하며, 연장 및 확대를 요청함
    - 일본의 랍스터 수입 검사로 인해 물류 지연 및 상품 손실 문제가 발생함. 캐나다산 랍스터는 해당 검사에서 제외됨
  - 미국 폴락(Pollock)의 경우 러시아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폴락 제품을 대체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짐을 강조하고 있음
  - 미국 새우 업계는 에콰도르,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산 냉동 새우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음
  - 해산물 검사 비용 문제와 외국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함
  - 전반적으로 미국 해산물 업계는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무역 환경을 위해 무역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함

※ 출처: SeafoodSource<sup>3)</sup>

3) 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supply-trade/as-trump-administration-upends-international-trade-seafood-companies-point-out-areas-for-improvement>

- 한 수산물 시장 분석가는 캐나다, 멕시코, 중국, EU로부터의 수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노르웨이와 칠레의 연어 수출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경고하였음.
- 내일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산물에 25%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,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상황이 "유동적"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EU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25%의 관세가 곧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Kontali의 최고 분석 책임자 Philip Scrase는 주간 시장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:
  - "이러한 조치는 무역 흐름을 저해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 역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. 관세 인상은 특히 대체재가 부족한 상품의 경우 미국에서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"
  - "노르웨이와 칠레가 미국에 공급하기 위해 개입하더라도 관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최대 10%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, 글로벌 무역 흐름이 재편될 것입니다.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유럽과 아시아로 방향이 전환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산자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.
  - "글로벌 가격에 대한 영향은 관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 단일 국가에 대한 부과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만, 유럽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는 시장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"
  - "장기적인 대응에는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생산자와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투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,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."

- "한편,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미국 소비자들은 대체 단백질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수산물 내에서 더 저렴한 상품을 찾을 것입니다."
- "현재 업계는 향후 몇 달 동안 무역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조정 기간에 직면해 있습니다."

※ 출처: [www.seafood.media](http://www.seafood.media)<sup>4)</sup>

---

<sup>4)</sup><https://www.fishfarmingexpert.com/alternative-proteins-global-trade-dynamics-norway-and-chile/us-sea-food-tariffs-will-shift-market-dynamics-globally/1902997> (3월 3일 기사)

- 캐나다가 최근 중국이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WTO)에 무역 분쟁을 제기했다고 WTO가 월요일 발표하였음.
- WTO는 "캐나다는 특정 캐나다 농수산물에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WTO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"고 밝혔음.
- 이달 초에 시행된 중국의 관세에는 캐나다 유채 기름, 완두콩, 오일케이크(동물 사료)에 대한 100% 추가 관세와 수산물에 대한 25% 관세 부과가 포함되어 있음.
- 중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 캐나다 정책이 "공정한 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쳤다"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였음.
- WTO 분쟁 절차는 관련 당사자 간 협의로 시작됨.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해결 패널 설립을 요청할 수 있음.
- 식용유, 동물 사료,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카놀라(유채 기름)의 선도적인 글로벌 생산국인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 많은 양을 수출해 왔음.
- 캐나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에 캐나다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해 취한 관세 조사에 이어 이러한 관세의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음.
- 이러한 무역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새로운 미국 관세 조치에 의해 캐나다, 중국,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하였음.
- 지난 8월, 캐나다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북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반영하여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100% 관세를 부과하였음. 캐나다는 또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음.

※ 출처: [www.seafood.media](http://www.seafood.media)<sup>5)</sup>

5) <https://www.seafood.media/fis/worldnews/worldnews.asp?l=e&id=134061&ndb=1> (3월 26일 기사)